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23

2020.4.19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오늘의 주요기사

- 2-3면 김정형 교수 특별기고
- 4-7면 장애인 주일 특집
- 8-9면 청년숲 소식
- 10면 함즐특집 “생각하여 보라”
- 11면 목회칼럼
- 12면 교회소식, 알립니다

교회일정

- 4/19(주일) 장애인 주일
- 5/3(주일) 어린이 주일
- 5/10(주일) 어버이 주일
- 5/17(주일) 청년 주일 / 교사 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에서 벗어나신 부활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완강하고 두꺼운 겹질의 본질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
기가 되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거둬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겹
질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 드린 부활절, 일상이라는 겹질에 갇혀 있었을
지도 모를 우리에게 올해 부활절은 유난히 새로웠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주님 가르쳐 주
신 대로 서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 다시 부활절이다! 함즐함울



특별기고 | 김정형 교수_장로회신학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새로워진 교회를 소망하며

들어가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가 이미 처해 있던 위기의 몇몇 측면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들을 없던 일처럼 덮고 가지 말고 직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섬기는 교회

감염병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안은 예배당 예배 중단 여부 및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온 주일성수의 고유한 전통을 생각할 때 이 시점에 예배의 형식 및 주일성수의 방법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적인 사안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유례없는 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처럼 교회 내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교회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다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교회는 다중 밀집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당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실천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유지나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세상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의 운명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지구촌 전체가 전례 없는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 성도들이 교회 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능력 상실을 보여 줍니다. 온 세상을 덮친 재난 앞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심지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까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치하에서 온 백성이 울부짖던 시절 3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온 땅이 황폐했을 때 곤경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에 여념 없었던 과거 한국 교회의 모습과 사뭇 대조를 이룹니다.

이 와중에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큰 위안이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예배당을 수제 마스크 공장으로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신한 한 교회의 이야기는 큰 감동과 시사점을 안겨 줍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모임을 정죄하

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전한 기사 제목은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예배가 빠질 수 있을까요? 예배당이 공장으로 변신했다고 어떻게 더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일에 노동했다고 어떻게 주일성수의 엄중한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교회의 창의적인 발상과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세상 속 교회의 바람직한 자리매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 교회가 본을 보여 준 것처럼 한국 교회가 '교회를 위한' 모임의 형식과 방법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모임으로의 창의적인 자기 변신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2. 무너진 교회 생태계의 복원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회의 자기 정체성 및 사명 이해의 문제점 뿐 아니라, 개교회주의의 확산으로 한국 교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앞에 보여 줍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법도 한데, 개별 교회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자원을 갖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 같은 노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다릅니다.

이 점에서 개신교의 대처 방식은 천주교와 불교의 대처 방식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한국 개신교를 특징짓고 있는 개교회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가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개별 교회에 위기 극복의 과제를 전적으로 떠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 한국 교회 생태계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보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폭로합니다.

예배당 예배 중단 결정은 개교회주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밀집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예배를 권장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형식의 전환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별 교회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 건물 안에서나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된 교회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예배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의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개별 교회가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수의 성도만 모이는 작은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굳이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영상예배 환경 구축을 위한 유형무형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라인영상 연합예배 등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배당 예배 중단으로 인해 개별 교회가 겪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당 예배 헌금으로 근근이 교회를 운영해 온 많은 교회가 예배당 예배 중단으로 재정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선한 도움의 손길이 없지 않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개별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기후위기 등 오늘날의 많은 재난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과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의 위협 앞에서 인류 사회는 국가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전문 영역의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오히려 개교회주의의 틀에 갇혀 재난시대의 요청에 효율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웃 교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이웃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도 함께 협력하며 한국 교회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 반지성주의의 극복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현대 과학의 합리적 사고를 배척하는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지금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유익한 설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 특히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은 자연 생태계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확산 역시 자연적 인과관계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모든 노력은 이와 같은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전제하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특히 목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과학적, 의학적 이해 없이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을 마귀의 술수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린 다거나 신앙의 열정이나 기도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한 교회에서 감염병을 예방한다면 성도들의 입에 소금물을 분무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발생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고백이 우리 시대의 재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강구를 위한 과학적, 의학적, 도덕적, 정치적 노력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편견으로 왜곡하는 불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목사나 신학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백송교회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필터를 장착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로 보급해서 이웃 섬기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바사의 고레스 왕과 같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 만연한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은, 이번 사태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계 안에 득세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은 신천지의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사이비 이단 집단과 얼마나 큰 차별성을 보여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 청년이 신천지로 옮겨간 이유에 관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식과 이성을 신앙과 대립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반지성주의적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는 재난 상황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인 설명뿐 아니라 몰상식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기존의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믿음을 격려하고, 성경에 대한 성실한 학자들의 연구를 존중하고, 신앙과 교회의 영역 밖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며

교회는 세상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감염병을 전파하는 감염병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선한 영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일탈 행위로 인해 재난 상황이 더 악화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재난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본적인 자기 개혁과 갱신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명예를 다시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양정우. "예배 멈춘 교회가 마스크 공장으로... 인천 백송교회의 '대변신'." 『연합뉴스』 (2020.3.13)
2. 채혜선. "성남 은혜의강 소금물, 목사 아내가 뿌렸다... 지역전파도 시작." 『국민일보』 (2020.3.17)



1.



2.

장애인 주일 특집

코로나19시대의 장애인 주일

4월 19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두들 힘이 들지만, 더욱더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의교회 장애인부서에서는 한층 더 땀 흘리는 요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순절 박스를 만들고, 영상예배를 촬영하고, 카톡으로 큐티나눔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를 더욱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함줄함울

장애인 주일 특집 | 장애인 사역부

'사회적 거리 두기'시대의 '사회적 거리 좁히기'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와의 간극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존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틈을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신학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2월 23일 이후로, 장애인사역부도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 2월 26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역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사역부 지체들이 이 시간을 더욱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로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해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사역부는 사순절 첫째주에 '사순절 박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함줄함울, 성경읽기표, 성경읽기계획표, 주님과함께 3월호, 사순절과 코로나에 관한 부서목회서신등이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 생활 패턴을 경험하며 성도님들이 교회와 단절된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전화, 편지 등 아날로그적 소통, 경건 훈련과 예배 참여를 통해 교회가 가정으로 깊숙이 들어감과 동시에 교회에서 세심한 목회적 돌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농아인 부서인 에바다부도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화를 쓰는 부서다보니 시각효과가 뛰어난 유튜브로 나눔에 빨리 적응하게 된 점입니다. 주일 11시 정각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밴드에서 함께 나눕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교회 에바다부"검색하여 채널 접속)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다를 바가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특송 등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수화 영상으로 정성껏 촬영하여 미리 보내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타 교회 농아인 분들과도 함께 영상을 나누고 선교의 통로가 되어 농아인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에바다부 농아인 성도님

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천, 천안 등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 이동을 위해 몇 시간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아인 지체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수화를 쓰는 농아인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쌓여가는 그리움만큼 더 단단해진 공동체로 마주할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부서인 잇딤나무 역시 몸은 교회와 떨어져있지만, 더 가까이 지내며 잇딤나무 카카오톡방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매일 부장집사님께서 올려주시는 큐티 나눔으로 시작되는 카카오톡방에는 지체들의 다양한 하루 일과가 전해져 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뿐 아니라 기존에 거동 불편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가 인터넷으로 된다는 소식을 이번 코로나19로 접하여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잇딤나무 지체들이 손과 이동이 불편한 관계로 반찬 등을 직접 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평소 부서에서 매주 준비하던 반찬사역도, 코로나19이후 각 가정에 반찬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2020년 부활주일에 이어, 장애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미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이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상에서도 이미 격리되어 배제와 고립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 소망의 공동체인 주님의교회가 교회 문을 열고 나온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몸으로 어떠한 예배적 삶을 드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지체들과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를 함께 주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정지혜 전도사 / 장애인사역부

주일 11시!

YouTube 유튜브에서
"주님의교회 에바다부"를 검색하세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매 주일 11시, 주님의교회 에바다부 수어 예배가
 유튜브 "주님의교회 에바다부"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사역부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에바다 수화 예배가 곧 시작합니다.

WELCOME
 TO
 EPHPHATHA
 WORSHIP

주님의교회 에바다부

▶ ◀ 🔊 • 최초 공개



장애인 주일 특집 | 간증

어려울 때마다 손 잡아주신 주님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 꽃들의 화사함을 느낄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텅 빈 마음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찬 시간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확산된 지도 3개월째.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진구에서 스포츠복권을 판매하는 작은 복권 방을 운영합니다. 복권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야 할 산들과 저를 바라보는 장애의 뜨거운 시선, 비장애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살아야했던 저로서는 그동안 인내하며 참고 견디던 시간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자 스포츠 경기를 뛰는 선수들조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경기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복권 판매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 지다보니 매출이 더욱 감소하여 세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걸어가 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이번 코로나19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내리라 소망합니다. 이 소망 품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은희 집사 / 싯딤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 간증

봄날, 내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

맑은 햇살을 가득 머금은 봄은 이리 하루하루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 두려운 코로나19는 언제쯤 우리 곁에서 사라질까요?

오늘은 부활주일! 온라인(유튜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옷도 단정히 입고 성경책도 펼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는데 눈이 피로할 때는 성경 읽어주는 어플로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읽어야 할 분량은 다 읽지 못하였지만 계속 말씀 읽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 한강변을 배경 삼아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 핑크핑크 진달래꽃, 흰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을 보며 계절의 오고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예배드리러 오고 가던 시간이 많이 그립습니다.

요즘처럼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때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먼 거리와 교통편이 어려워 수요일예배, 새벽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어려웠는데, 온라인 예배 덕분에 가정에서도 '수요일예배'와 'QT 주님과함께'를 꾸준히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세계에 드리운 두려움과 아픔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길 기도 드립니다.

손치아 집사 / 싯딤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 사랑나무

모두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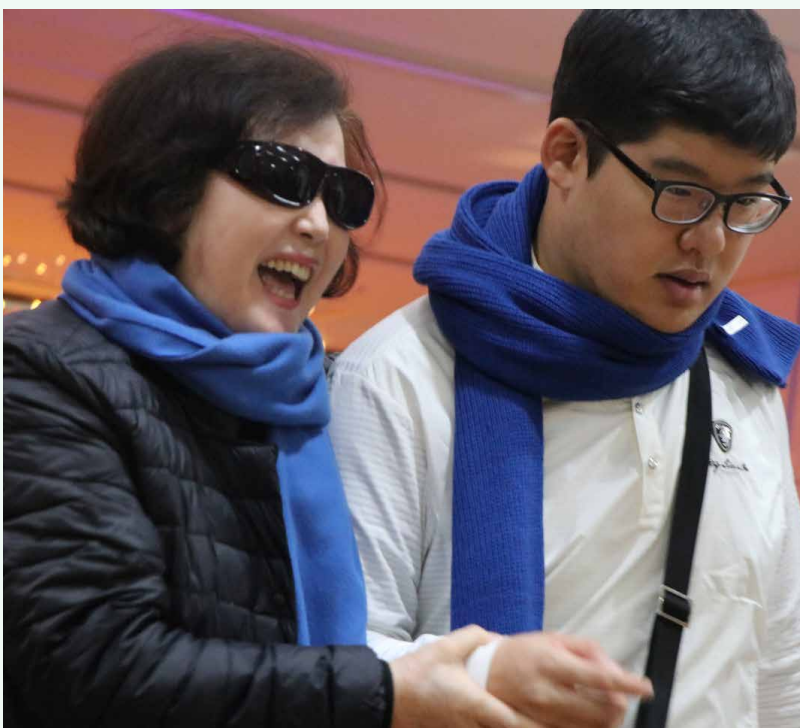
사랑나무 친구들은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른 교육부서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네요. 어떤 친구들은 깊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열 번도 넘게 예배를 드려서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나무 친구들은 교회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주일이 돌아온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오전부터 교회에 가자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주중에 찍은 사진보다 주일에 찍은 사진 속의 표정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정도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상을 주신다면 사랑나무 친구들은 최우수상을 받을 거예요!

코로나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랑나무 친구들에게도 큰 어려움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원래 남들보다 활동반경이 좁았던 친구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더 움직임이 적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를 탁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니까요. 왜 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지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 번 설명해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것도 사랑나무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큰 안타까움이랍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랑나무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소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들도 칭찬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도 칭찬합니다. 사랑나무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주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니 기운 내도록 해요. 파이팅!



장애인 주일 특집 | 간증

동현 엄마의 특별한 휴가

얼마만의 느긋함인가,
며칠만 집에서 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매일 아침 몇 분 몇 초를 따져가며 학교 셔틀버스를 태워 보낸다.
아이와 함께 한 몸 되어 생활한 지도 어언 25년 쯤다.

어릴 때는 언어, 심리, 음악, 인지 치료실로
학년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생후 18개월에 유사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 한 일은
서점에 들러 관련 서적을 모조리 쓸어오는 것이었다.
밤새워 읽고 또 읽었다 잠도 오질 않았다.
생소하고 듣도 보도 못한 자폐가 도대체 어떤 장애일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의 특정 결함인 사회성과 언어 발달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엄마와 눈 맞춤조차 안 하는 아이를 둘러업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
저게 코끼리라고, 호랑이, 앵무새라고 목이 터져라 반복해서 외치며
얼굴을 돌려 쳐다보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떡하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부모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쏟아부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장애를 인정하고 마음을 추스를 때쯤 우리 교회 사랑나무에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됐다.
사랑 가득한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라 의지가 됐다.

예배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가 성경봉독을 하고
율동도 따라 하는 등 아주 천천히 더디지만 발전하는 아이를 볼 때면
한없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사랑나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학교도 교회도 어디에도 못 가고 일상이 멈춰버렸다.
그동안 애썼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휴가라고
생각해 본다.

아이는 어느새 스물다섯 성인이 돼 버렸다.
복지관에 소속된 대학생이다.
학교에서도 동현 씨라고 호칭이 바뀌었다.

부모 사후에라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여건이 사회적 변화가 앞당겨지리라 믿는다.

이미진 집사 / 김동현 엄마



청년술 | 온라인 예배

멈춤이 없는 예배로 본질에 집중하다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코로나 19가 확산됨으로 인해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정지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일 언론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치우친 극단적인 교회들과 이단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님의교회는 2월 23일부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부 교역자들은 상황의 안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할 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월에 계획되었던 겨울 수련회를 취소하고, 대안으로 2/9,16(주일) 청년예배 시간에 “Rebuild Worship”이라는 청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겨자씨 모임은 온라인 안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묵상 글을 나누고 온라인 성경퀴즈로 진행했습니다. 청년부의 모든 소식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가 되면서 3월 1일부터 청년부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참석 독려를 위해 1,2차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감사하게도 1차 영상의 조회수는 3500회, 2차 영상은 1300회가 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한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배 후 실시간 겨자씨 모임과 라이브톡 리더모임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카이프 화상회의를 통한 코셀리더 모임, 라이브톡을 통한 온라인겨자씨 인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리더들의 헌신과 겨자씨원들의 사모함이 온라인 만남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드리는 특수한 온라인 예배 캠페인 영상과 온라인 모임(카톡, 채팅, 댓글)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에티켓도 작성하여 배포했습니다. 청년들과의 만남은 전화나 카톡을 통해 삶을 나누고 있고 예정되었던 훈련과 양육은 온라인 강의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위해 청년부 4명의 교역자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예배 기획,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매일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합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예배이기에 시작은 촬영, 진행, 편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배우고 익히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위한 소통 콘텐츠로 함께하고자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청년사역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 봉사 등의 거의 모든 사역들이 연기되는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춤이 없는 예배로 본질에 집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드리는 예배로 힘겹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의 선택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택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가정예배의 회복을 도모하고,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시간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숲 | 소감

좋았고 좋았으며 좋았습니다!

- 이현주** 좋았고 좋았으며 좋았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숲♥
- 김윤미** 평소처럼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 강찬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준**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을 하는 것과 교회의 큰 흐름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호** 빨리 지금 상황이 안정화 되길 기도합니다!
- 유재현** 소중한 사람 어찌 지낼까
보고픈 마음 못내 아쉬워
모니터 넘어 전하는 말씀
좋았던 그때 소망케 하네
- 신다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 이주엽** 마지막 오프라인 예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매주 힘써주신 교역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태** 목회자분들의 특송과 편집,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부활절예배는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좀 더 특별하게 드려서 좋았어요~
- 박건우**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배워나가는 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 허인범** 스트리밍 예배를 위해 교역자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 강현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가까워지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 박시현** 이번 예배를 통해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숲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함줄함줄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함께 살아가는 상상력

한 친구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뒤 만나자고 했다가, “내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이었구나.”라는 농담을 들었습니다. 새삼 나와 너,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세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두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말씀, 헌금, 평화, 가정, 기도, 거룩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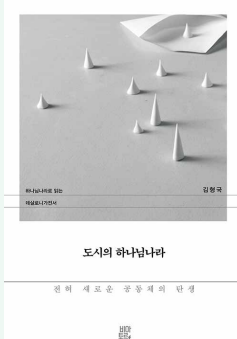
주님의 서재 ❸ 공동체를 생각하다

나, 너,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너’가 만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속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너’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별은 줄이고 다름에 대한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신영복의 글귀를 기억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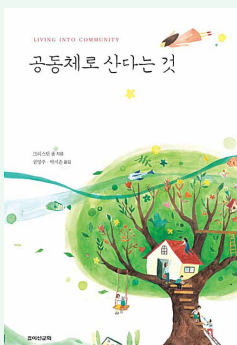
〈도시의 하나님나라〉김형국, 비아토르, 2019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 치안과 위생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현대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바울 떠난 자리에서 교회가 자라났다. 겨우 싹을 틔운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자라나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 겉보기에는 융성하고 단단해 보이는 한국 교회, 특히 도시의 교회들은 이미 교회가 아닌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지 모른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한국 교회를 나란히 놓고,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왜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를 꼼꼼히 살피며 추적한다. 책은 관찰과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도시 교회들이 잃어버린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이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 나들목교회와 그로부터 비롯된 현재진행형 사례들을 촘촘하게 제시한다.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교회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서 판가를 나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꽃꽂한 목이나 매끈한 허가 아니라 묵묵한 손과 발이다. 고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대의 도시 교회들에게 질문한다. 그대들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까?



〈공동체로 산다는 것〉크리스틴 폴 지음 조이선교회, 2014

“인간은 공동체 안에 있도록 지음 받았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장 풍요로워지고 가장 인간다워진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해주리라는 기대를 품고 설렌다. 그러나 곧, 공동체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부대끼다가 실망하고 숨어버리고픈 유혹에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공동체는 다르리라는 환상을 놓지 못한다. 놀랄 만한 멋진 순간도 있고 깊은 유대감이 생기는 때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 생활은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감사, 약속, 진실함, 손대접이라는 일상적인 실천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붙들어 주는지,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져 왔는지, 이 실천이 왜 곡될 때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는지, 이 실천을 개발하고 습관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인 크리스틴 폴은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찬찬히 점검하여 친절히 소개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

〈기방 들어주는 아이〉고정욱, 사계절, 2014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저자가 쓴 이 책은 장애아뿐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이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작품이다.

〈민요 자매와 문어 래퍼〉고정욱, 다림, 2020

고정욱 작가의 신작으로 동생 송언이를 통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책 읽어주는 부모 ❸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들의 무한한 머릿속

같은 내용의 책과 영화를 모두 보신 적이 있나요? 〈나니아 연대기 -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나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메리 포핀스〉 같은 거죠. 요즘에는 〈신과 함께-죄와 벌〉처럼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책이나 그림으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한 장면들까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더욱 실감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머릿속에서는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각자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그려 집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고 창의력입니다.

“책을 읽어줄 때 상상력과 창의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밝힌 실험이 있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다음 글귀가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발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아이들을 두 조로 나눠 한 조는 책을 읽고, 다른 한 조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상을 보고 위 글귀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설을 읽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모두 달랐고, 영상을 본 아이들의 그림은 거의 같았습니다. 징검다리, 소녀, 갈대숲을 영상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그린 거죠. 하지만 책을 읽은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책 읽어주기의 기적〉 97쪽)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가능하면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는 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혼자 눈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는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을 귀로 들을 때 그 상상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책 먼저, 영화나 중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난 후에 책을 더욱 재미있게 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책을 좀 더 가까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행, 만남, 인문과 예체능 교육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읽기입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상상한 것을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책읽어주기를 시작해보세요. 이왕이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표현된 〈나니아 나라 이야기 시리즈〉를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목회칼럼

경청(傾聽)

모든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겨자씨, 여전도회,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여러 제직부서 및 사역부서 안에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벗어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 있기에 기쁘지만 반대로 관계 안에 있기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속담으로 보자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길 사람의 속도 아는 것이 힘든데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도 없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계명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이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수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움직여서 채워주기 때문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가능합니다.

지하철을 타는 때의 경험입니다. 철로 위를 지나는 전동차 운행 소리, 다음 역을 알려주는 안내방송, 정차하는 역마다 사람들의 내리고 오르는 소리 등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반적인 지하철에서의 소리를 넘어서는 상당히 큰 소리의 전화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참 동안 객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할 때쯤 한 어른이 본인의 전화 소리를 아시고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어 받으셨는데 그 소리는 전화벨 소리보다 더 큰소리의 “여보세요”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소리는 점점 더 커

져갔습니다. 짧은 통화 시간이었지만 객차 안의 사람들 대부분은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꼭 저렇게 큰 소리로 통화를 하셔야만 했는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르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공공장소임에도 왜 큰 목소리로 통화하셨을까? 문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잘 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 안 들리니 상대방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교육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요. 그래서 더 크고 높은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르신은 연세가 있으셨기에 잘 듣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소리가 높아지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어르신은 연세가 있으셔서 잘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대방의 말보다는 자신의 말만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 할 뿐입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함께 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접착점으로 삼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 경청입니다.

경청(傾聽)은 몸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기울어질 경(傾)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

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말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 순간 필요한 것이 기울어질 경(傾)입니다. 경(傾)은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들을 청(聽)은 여러 단어가 조합된 한자입니다. 귀 이(耳), 임금 왕(王), 열십(十), 눈 목(目), 한 일(一), 마음 심(心). 듣는다는 것은 어진 왕(王)이 백성의 소리에 귀(耳)를 기울이듯 해야 한다는 것.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 듣는 귀 주시기를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어진 왕의 마음으로 귀를 열고, 열(十)개의 눈(目)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목하며 아이컨택트(eye contact)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한(一) 마음(心)을 가지도록 취해야 하는 자세가 들을 청(聽)입니다. 들을 청(聽)은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 눈과 마음의 정성으로 들으려 할 때 말하는 이의 마음도 열릴 것이고 그 안에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초대회장인 이병철 씨는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최고의 덕목을 써주길 이 ‘경청(傾聽)’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듯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극하다 부른다.

지극한 사람은 인복이 있다.

지극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처세술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를 경청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도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최고의 방법을 경청(傾聽)이라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교육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래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임과 만남이 잠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지, 모임과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몸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경청(傾聽)의 자세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과 밖의 모든 만남과 모임 속에서 하나 됨의 다리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길 축복합니다.

정구민 목사 / 청년송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강단에는 꽃과 고딕 양식의 창문을 배경으로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펼쳐졌다.
비록 예배당은 비어 있었으나 예수님 부활 소식은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둘기들의 날갯짓을 따라
온 누리에 전해졌고,
우리는 각자 처한 거소에서 그에 화답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회소식

4월 정기당회, 코로나19 상황 적극적인 대응논의

4월 정기당회가 4월 12일 오후 4시 3층 소년부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당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주요 목회일정의 변경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및 성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미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대구 신광교회 및 대구지역 교회에 후원금 2천만 원과 마스크 1,500매를 지원하고, 3월 31일 평남노회 내 미자립교회와 영세교회 30곳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헌금(공활헌금) 추진이 논의되었다. 교인들의 헌금 액수에, 교회의 보험료 환급금과 예비비에서 추경을 통해 마련한 같은 액수를 포함하여 약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회 예배 재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특성에 따라, 학교와 교회 간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함줄함울

교회소식

평남노회 내 미자립교회 및 영세교회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미자립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님의교회는 3월 31일 교회가 속한 평남노회 안의 미자립교회와 영세교회 30곳에 4,500만 원을 지원했다.

함줄함울

교회소식

코로나19사태로 변경되는 주요 목회일정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님의교회 주요 목회일정, 사역 및 행사가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조정된다.

목회 및 사역	변경 및 조정
2020년 성인 및 유아세례	2학기로 연기
새가족 양육	3월 이후 잠정 연기
어와나	잠정 연기
어린이 제자훈련	2학기 개강
2020 무지개잔치	개최하지 않음
중등부/고등부 여름수련회	1일 수련회로 대체
중등부/고등부 비전트립	취소
교구 수련회	취소
전화상담	4월부터 중지 및 자동전화 안내
해외청소년 초청행사	취소
비전트립	취소
반가운학교	3월부터 휴교
늘푸른대학	등록점수와 개강 무기한 연기
독거 어르신 무료급식	서울시 별도 통보시까지 중단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	서울시 별도 통보시까지 중단
송파구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월말 종료
함줄함울	422호(3.22), 423호(4.19) 온라인본 발행
주일설교문	인쇄물 없이 홈페이지 게재
상례	교구 대표자만 참석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연기
교회 출입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출입자기록부 비치

☺ 알립니다

1.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양성과정)

▶ 교육기간 : 상반기(12주) 4/18(토) ~ 7/11(토)
하반기(6주) 10/17(토) ~ 11/21(토)

*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은 "마땅히 행할 길"(잠 22:6)을 전수하여 신앙의 주체로서의 가정,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학교,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갑니다.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2. 상반기 겨자씨 모임 개강

일시 : 4/22(수)부터 온라인 개강

방식 : ① 전체 겨자씨 대상 교육(유튜브 영상)

② 겨자씨별 후속 모임(Follow-up meeting)

→ 카카오톡 / 그룹톡 / 라이브톡 활용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4월부터 당분간 전화상담이 중단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